



보도 관련 문의:

Tim Hallman

전화 +1 (415) 581 3711

이메일 pr@asianart.org

Annie Tsang

전화 +1 (415) 581 3560

이메일 annietsang@asianart.org



조선 왕실, 잔치를 열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서 잔치문화를 담은
한국미술의 진수를 선보인다

오는 가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Asian Art Museum, San Francisco)은 조선시대(1392-1910)의 화려하고 장엄한 향연과 의례에 관한 특별기획전, «조선 왕실, 잔치를 열다 (In Grand Style: Celebrations in Korean Art during the Joseon Dynasty)»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다. 역사상 장기간 지속된 왕조인 조선 왕조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의 한국 문화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정 문화재 여러 점을 포함하는 주요 유물 115 점을 소개한다.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탄생일이나 혼례와 같은 인생의 경사스러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축하 의례에 사용되었던 것들로, 조선시대의 성대한 잔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정성을 들여 섬세하게 준비한 이러한 잔치들은 종종 수천 명의 하례객이 참석하고 며칠에 걸쳐 펼쳐질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 흥겨운 잔치에 춤과 음악, 행차, 그 중 어느 것도 빠질 수 없었으며, 잔치상에 오를 음식의 배치까지도 지정하는 엄격한 양식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유교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는 '예(禮)'가 태평성대의 기반이었으므로 관직 부임, 생일, 혼인, 장례 등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들이 법도에 맞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의례들은 글과 그림으로 <의궤(儀軌)>라 불리는 여러 권으로 구성된 책에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이 문헌 기록들은 왕실 지배가 끝난지 100년이 넘는 오늘날에도 이를 통해 의식과 행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다.

« 조선 왕실, 잔치를 열다 » 특별전은 전시된 작품들을 통해 조선시대 왕권의 의미, 왕실의 행차와 향연, 궁중의 여성 권력 그리고 조선 양반 사회의 삶과 축하 의식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주요 전시 유물로는 2 미터가 넘는 크기의 정교한 장식을 지닌 왕실 가마, 태조 임금의 공덕을 기리는 글을 새긴 옥책(玉冊), 46 미터 길이의 정조 시대의 유명한 <화성원행반차도(華城園幸班次圖)>, 어좌(御座)와 어보(御寶) 등은 물론 궁중 연회, 행사 의복과 장식물들이 그려진 의궤가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미술관 관장인 제이 슈 박사는 “« 조선 왕실, 잔치를 열다 »는 조선의 다채롭고 화려한 궁중 행사를 기리는 것으로, 아시아 미술관이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Civic Center 로 옮긴지 10 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에 적합한 전시입니다. 2003 년 우리 미술관은 이전 기념 전시로 고려시대에 관한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0 년이 지난 올해, 그 다음 왕조인 조선시대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를 통하여 Civic Center 에서의 10 주년을 자축하고, 우수한 한국미술과 더 나아가 '축하'에 관한 문화를 기리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리' 전시실(Lee Gallery) : 왕권의 강화 - 탄생에서 즉위까지



'리' 갤러리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조선 시대의 왕이 태어나서 즉위할 때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의식들을 치렀는지 알려준다. 한국에서만 나타났던 독특한 의례는 태를 봉안하는 '안태'의식일 것이다. 왕실에서 왕자와 공주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감싼 태반, 태줄 등의 신체 조직들을 안 향아리와 바깥 향아리에 담아 태실에 모신다. 이는 조선 왕실과 국가의

성쇠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징적으로 왕실가족이 보호받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15 세기 후반, 백자 태항아리는 좀 더 길이가 길어지고, 향아리의 어깨 부분에 네 귀가 달린 규격화된 양식을 취하는데, 이 전시실의 명안공주의 태항아리가 그 예이다.

조선 왕조의 왕위 계승은 장자 상속이 원칙이다. 태어난 지 1 년 만에 왕세자에 책봉된 순종 황제(재위 1907-1910)가 그 예로, 순종의 탄생과 왕세자 책봉을 축하하는 그림이 이 갤러리에 전시된다.

조선의 왕은 생존 시에 그의 업적을 기리는 존호를 받았다. 또한, 사후에는 치세 동안의 공덕을 기린 시호와 묘호를 받기도 했다. 숙종(재위 1674-1720)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게 그가 재위한 지 수 백년이 지나 존호를 올렸는데, 이는 상징적인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다. 이 의례를 위해 숙종은 네 개의 태조 존호를 새긴 금으로 만든 어보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열 장의 옥판 위에 태조의 공덕을 칭송하는 글을 금으로 새긴 옥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명안공주의 태항아리, 1665-1670. 한국, 조선시대(1392-1910). 백자. 내향아리: 높이 7 1/2 인치 x 둘레 3 3/4 인치, 곁향아리: 높이 12 3/4 인치 x 둘레 8 1/4 인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왕실은 화원들에게 중요한 행사와 축하 의례의 상세한 내용을 그림으로 담도록 했다. 왕실 초상화를 제외하고 화원들은 어좌와 같은 왕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왕을 표현해야만 했다. 회화에서 왕권의 일반적인 상징은, 여기에 전시된 병풍에서 볼 수 있듯이, 해, 달, 그리고 다섯 산봉우리이다. 이 병풍에 그려진 요소들은 왕이 상징적으로 한 가운데 위치하는 천하를 재현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은 20 개의 현존하는 <일월오봉병(日月五峰屏)>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들 중 하나이다.

왕이 어디에 가든지 이 병풍이 어좌 뒤에 설치되었다. 이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어좌는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을 뿐 아니라, 한국의 궁궐 외부에 현존하는 단 2 개의 어좌 중 하나이다.

'햄브렉트' 전시실(Hambrecht Gallery) : 왕실 행차과 향연—1795 년 정조 임금의 화성행차를 바탕으로



'햄브렉트' 전시실은 한국의 문화 중흥기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영조(재위 1724-1776)와 그의 손자인 정조(재위 1776-1800)의 치하에서 18 세기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대외 관계가 활발했으며, 경제 부흥과 문화 혁신이 일어났다.

이 전시실에서는 왕실 행차에 사용된 유물들이 소개되는데, 이러한 행차는 지위를 막론하고 궁중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다. 가장 많은 정성과 기술력을 들여 준비한 행차로는 1795 년의 화성으로의 행차를 들 수 있는데, 정조가 화성(華城, 지금의 수원)에 있는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고 그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위한 회갑연을 베풀었다. 보통 3 일에 걸친 다른 화성원행과는 달리, 정조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포함한 8 일간의 여정을 기획하였다. '햄브리트' 전시실 중앙에는 이 유명한 행차를 기록한 46 미터 길이의 장대한 회화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은 이 행차의 중요한 여덟 장면 만을 뽑아 그린, 귀중한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 8 폭 병풍도 만날 수 있다. 그 중 한 폭은 임금이 한양(漢陽, 지금의 서울)으로 돌아오는 행차를 그린 것으로, 그림 속의 커다란 가마가 왕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같은 전시실에는 조선 시대에 쓰인 장식이 화려한 가마가 전시된다. 2 미터가 넘는 크기의 이 가마는 금으로 칠한 상서로운 동물의 형상들로 꾸며졌으며, 총 16 명이 네 귀퉁이에 네 명씩 들채를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설계되었다.

화성원행반차도 (정조 임금이 화성의 아버지 묘소로 행차함) (세부), 한국, 조선시대(1392-1910), 두루마리; 종이 위에 수묵채색, 세로 18 3/8 인치 x 가로 150 피트 11 인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오셔' 전시실(Osher Gallery) : 궁중의 여성 권력 및 상류 사회의 삶과 축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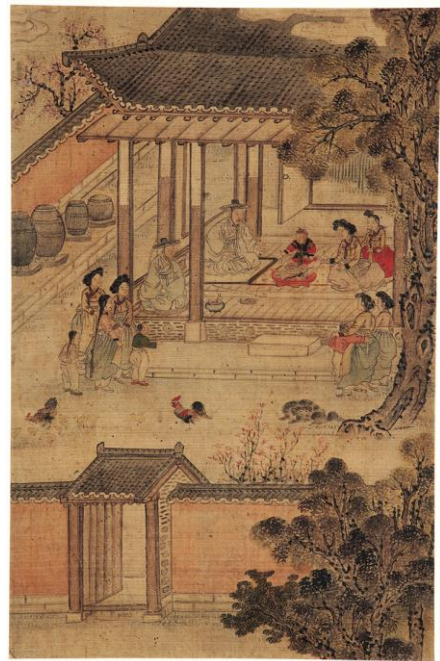
'오셔' 전시실의 전시는 조선 왕실 내의 왕후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밝히며, 19 세기 한국의 지배 계급의 삶과 축하 문화를 엿보게 해 줄 것이다.

이 전시실에서는 헌종(재위 1834-1849)이 그의 계비 효정왕후와 올린 가례를 기록한 병풍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보물 (보물

733)로 지정된 이 병풍그림은 흔례의 시각적인 기록일 뿐 아니라, 조선 시대의 기념과 축하 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조선 시대의 왕후들은 공식적인 통치자는 될 수 없었지만, 남성 친족, 특히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과 손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의례와 축하 의식은 왕후의 후손들의 왕위 계승권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권력을 강화했다. <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屏)>으로 이름 붙여진 병풍에서 볼 수 있듯이, 권세의 정점에서 순원왕후는 여기에 그려진 그녀를 위한 두 번의 향연으로 칭송된다. 별도로

제작된 의궤에도 이 의례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미술관 관람객들은, 어느 여성들이나 공식적인 행사와 격식있는 의례를 위해 공들여 준비하는 것처럼, 그림 속의 왕후들도 수많은 머리 장식과 장신구들로 꾸민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셔' 전시실에 전시된 <의례용 봉황 장식 머리카락>과 <의례용 앞꽃이 머리장식>은 이 시대의 여성 장신구의 독창성과 우아함을 잘 보여준다. '오셔' 갤러리의 궁중머리 장신구 일군은 한국의 중요 민속 문화재 265 호로 지정된 것이다.

조선의 궁중 문화는 궁중 바깥의 사회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상류층, 양반의 문화에 영향을 주는 표본이었다. '오셔' 전시실의 회화작품들은

양반 사대부 삶의 기념할 만한 업적 - 과거급제, 첫 관직으로 행차, 관찰사 부임 - 을 축하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다.

헌종 임금의 결혼 축하잔치, 1844. 한국, 조선시대(1392-1910). 8 폭 병풍. 비단 위에 수묵채색, 세로 45 1/4 인치 x 가로 20 1/8 인치 (각 폭). 보물 제 733 호,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아대학교 박물관 사진.

위 사진: 평생도 중 들잔치, 김홍도(1745-1806 이후) 전칭. 조선 시대(1392-1910), 비단에 수묵채색, 높이 28 7/8x 넓이 20 1/4 인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제공.

또한 이 전시실에서는 생일, 혼례 그리고 다른 기념일들을 축하하는 작품들과 축하연회에서 사용된 양반사회의 유물들이 전시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용되는데, 이는 현대 한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 시대 문화 유산의 찬란한 전통을 증명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은 이번 전시에 포함된 현대 미술 작품 -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가인 백남준의 <엄마>-을 통해 강조된다. <엄마>는 LCD 화면 앞으로 걸린 전통 두루마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문화가 종종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의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Leeum 디지털 돋보기'를 도입한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환어행렬도> 의 정밀한 세부 묘사가 삼성의 고화질 화면으로 확대되는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 미술관 Leeum 이 제공하는 이 테크놀로지는 관람객과 미술품의 소통을 가능케 하며, 관람객들은 바로 지금,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살아 숨쉬는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이 기술과 기기는 삼성이 후원한다.

« 조선 왕실, 잔치를 열다 »는 아시아 미술관에서만 만날 수 있다.

언론공개회

« 조선 왕실, 잔치를 열다 » 특별기획전의 언론공개회가 2013 년 10 월 23 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공개회는 오전 10 시에 시작하며, 오전 10 시 30 분에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0 월 18 일 금요일까지 이메일(pr@asianart.org) 이나 전화(+1.415.581.3713)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판

이번 특별 전시에 맞춰 도판이 다양하게 수록된 알찬 내용의 도록을 발간한다. 양장본. 9 X 12 인치, 160 페이지, 채색 도판 225 개. 10 월 23 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뮤지엄 스토어에서 구입 가능. \$35. 전화 문의(+1 415.581.3600) 혹은 이메일 문의 (shop@asianart.org)

전시 기획, 후원

이 전시는 2009 년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 잔치풍경-조선시대 향연과 의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과 협력하여 아시아 미술관이 조직하였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전시는 코렛 재단, 삼성, 한국국제교류재단, 버나드 오셔 재단, E. 로즈와 리오나 B. 카펜터 재단, 실리콘 밸리 은행, 제이미와 스티브 첸, 존과 바바라 오스터와이즈 그리고 수노 케이 오스터와이즈가 후원한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정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 이종문 아시아 미술과 문화 센터는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예술 기관 중의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만 팔천 점이 넘는 6000 년 역사의 아시아 예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은 전통 유물과 현대 작품들을 어우르며 관람객들의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아름다운 과거를 펼쳐주며,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새로운 예술, 새로운 창조성과 새로운 사고의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문의: 전화 (+1 415.581.3500) 혹은 홈페이지 참조(www.asianart.org)

주소 : 200 Larki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관람시간: 평일(월요일 휴관): 10:00~17:00. 2 월~9 월 매주 목요일~21 :00 연장 관람.
1 월 1 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휴관

관람료: 미술관 회원 무료, 성인 \$12, 경로(만 65 세 이상), 대학생(학생증 지참), 청소년(만 13 세-17 세) \$8, 어린이(만 12 세 이하), SFUSD 학생(학생증 지참) 무료. 목요일 17 시 이후 모든 입장객 \$5 (만 12 세 이하의 어린이와 SFUSD 학생, 미술관 회원은 항상 무료). Target First FREE Sundays(매달 첫 일요일)은 무료 입장. 특별기획전은 별도의 관람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 휠체어 사용 가능. 전화 문의(+1 415.581.3598; TDD:+1 415.861.2035)

###